

# 대구 새 지도 그리기 '순조'

## 대·경 디자인센터등 14개 사업 마무리 단계 대구시립미술관 건립등 신규 9건 올해 착공

대구시 종합건설본부는 올해 안으로 대구경북디자인센터와 팔공산 순환도로 공사 등 14건의 주요 건설사업이 마무리된다고 8일 밝혔다.

또 대구시립미술관과 팔공로~공항공간 도로건설, 노인건강체육센터 건립 등 9건의 신규사업을 올해 착공할 예정이다.

대구경북디자인센터는 사업비 348억 원을 들여 동구 신천동 대구상공회의소 옆 680여 평 부지에 지상 12층, 지하 4층, 연면적 1만9천여㎡ 규모로 오는 7월 완공된다.

또 사업비 50억 원이 투자된 지상 2층, 지하 1층, 연면적 2천300여㎡의 이

곡국민체육센터(수영장)는 오는 4월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.

지난달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 중구 종로1가 청소년 종합지원센터(지하1층, 지상4층, 연면적 1천590㎡)와 가로 109m, 세로 72m 규모의 이곡운동장 인조잔디 축구장(사업비 11억원)도 모두 연말에 완공된다.

또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교통편의를 위해 달성2차사업단지 경계도로 건설(사업비 389억 원)이 올 10월까지 마무리 된다.

이와 함께 도심 교통난 분산을 위한 명곡택지~본리택지간 도로와 유천교~구마고속도로간 4차순환도로, 동구

파계로~경북 칠곡군간 팔공산 순환도로 건설도 모두 5월 안으로 끝낼 계획이다. 이밖에 대구시립미술관(사업비 669억원)이 올 상반기에 착공해 2009년 12월까지 지상 3층, 지하 1층, 연면적 2만여㎡ 규모로 건립된다.

또 회원유원지~월배차량기지 도로(사업비 319억 원)와 팔공로~공항공간 도로(사업비 742억 원), 현풍하수종말처리장(사업비 756억 원) 등도 올해 안으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.

대구시 종합건설본부 고인덕 관리과장은 "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체증 해소 등 시민편의를 위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은 가능한 연내 마무리 하고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올 해 안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"고 말했다. 최태욱기자 choi@idaegu.co.kr